

서산 성연-운산간 국지도 확·포장공사 구간내  
문화재 발굴(시굴)조사

약보고서



2011. 11.

(재)충청문화재연구원

## I. 조사개요

- 조사명 : 서산 성연-운산간 국지도 확·포장공사 구간내 문화재 발굴(시굴)조사
- 조사지역 : 충청남도 서산시 음암면 도당리·탑곡리 일원.
- 허가번호 : 2011-0169호
- 조사면적 : 54,394㎡.(전체면적), 44,975㎡(부분완료면적)  
3구간 (정밀발굴조사-752㎡), 4구간(시굴조사-8,667㎡)
- 조사기간 : 2011. 9. 27 ~ 2011. 10. 29 (현장조사일수 23일)
- 조사의뢰기관 : 충청남도 종합건설사업소
- 조사경위 : 지표조사 : 2007. 1. 18. ~ 2007. 2. 1. 충청문화재연구원<sup>1)</sup>  
시굴조사 : 2011. 4. 13 ~ 2011. 5. 22 (현장조사일수 28일)<sup>2)</sup>  
4구간 미보상으로 조사중지(2011.5.16.)
- 조사단의 구성
  - 단 장 : 박영복(충청문화재연구원장)
  - 책임조사원 : 나건주(충청문화재연구원 조사연구부장)
  - 조사원 : 이의지(충청문화재연구원 선임조사연구원)  
: 최하영(충청문화재연구원 조사연구원)
  - 준조사원 : 정봉구(충청문화재연구원 조사원)  
: 최희진(충청문화재연구원 기능직정리원)
  - 보조원 : 이선아(충청문화재연구원 조사원)  
: 윤정희(충청문화재연구원 기능직정리원)

1) (재)충청문화재연구원, 2007, 『서산 성연~운산 도로건설공사 실시설계 구간 내 文化遺蹟 地表調査 報告書』, 노선은 비교1안으로 결정됨.

2) (재)충청문화재연구원, 2010, 『성연-운산간 국지도 확포장공사 문화재 시굴조사(1·3구간) 약보고서』.

## II. 조사지역의 환경

### 1. 自然地理的 環境

조사대상지역이 속해 있는 瑞山市는 忠淸南道의 西北端에 위치하며, 서해바다와 접하고 있다. 서산시는 충청남도 서북단 태안반도에 속하며, 남단은 부석면 간월도리로 북위 36° 00', 동단은 운산면 와우리로 동경 126° 39', 서단은 팔봉면 진장리로 동경 126° 22'이다.

서산시의 전반적인 地形은 시의 동쪽지역에 있는 가야봉(677.6m), 석문봉(653.0m), 상왕산(307.2m)으로 이어지는 가야산지가 남북으로 달리고 있고, 서쪽으로는 성왕산(252.0m), 부춘산(187.6m), 팔봉산(361.5m)의 구릉성산지가 연속되어 서산의 주요 산지를 이루고 있다. 서산의 북쪽인 대산의 망일산(302.2m)과 남쪽의 도비산(351.6m)은 해발 300m 내외의 저산성산지이나 절대적인 상대적으로 고지대에 해당된다. 전체적으로 볼 때 서산지역의 산과 산지는 동쪽에서 가야봉-석문봉-상왕산으로 이어지는 남북방향의 가야산지, 서산시내의 북쪽에서 성왕산-부춘산-팔봉산으로 이어지는 동서방향의 산지 그리고 대산의 망일산, 부석의 도비산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이들 산지로부터 북쪽으로는 대산반도, 남쪽으로는 부석반도가 뻗치면서 수많은 灣入과 大小의 섬들을 형성되어 있다.

서산시의 해안지형을 보면 해안선이 길고 복잡한 리아스식 해안이다. 또한 연안은 수심이 얇고 조차가 커서 넓은 간석지를 형성하고 있는 곳이 많다. 간석지는 예부터 농경지·염전·양식장 등으로 이용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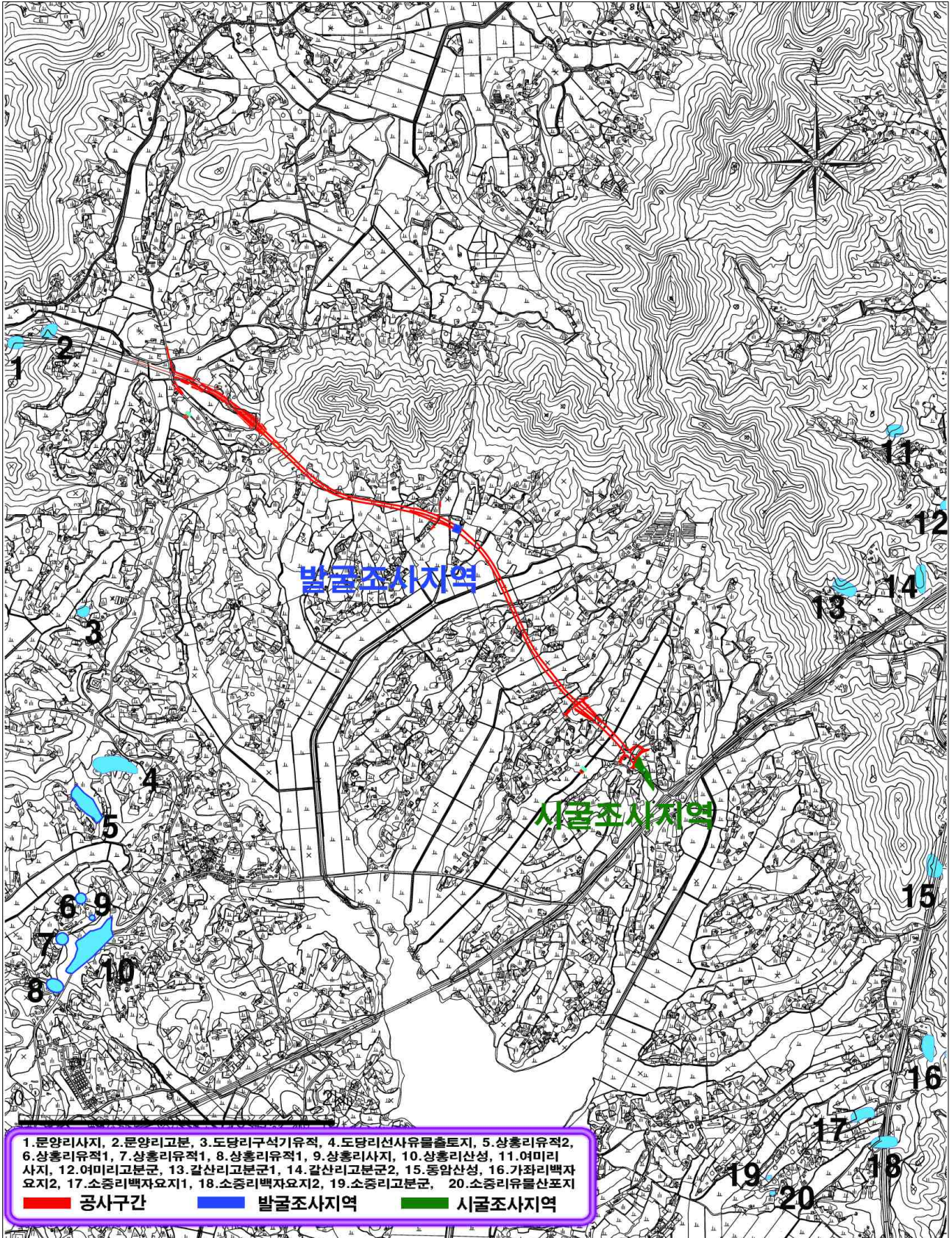
서산시의 地質을 살펴보면 선캄브리아기의 서산층군과 쥐라기의 대보관입암류에 속하는 화강암류로 되어 있으며, 이밖에 소규모의 쥐라기 섬장암류, 백악기의 불국사관입암류에 속하는 산성맥암류와 제4기의 충적층 및 간척사업에 의한 매립지로 구성되어 있다. 가장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는 것은 화강암류로, 주로 서산시의 중부에서 남북지역에 걸쳐 분포하고 있다. 이 지역 변성암류는 서부의 고변성 퇴적암류(서산층군)과 동부의 저변성 퇴적암(태안층)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근흥면 안기리 부근에서 상호 사교부정합인 관계를 보인다.

조사대상지역이 속한 서산 성연~서산 운산간 일대는 서산시 북동쪽에 위치하며, 이 주변으로는 북쪽의 봉화산(해발 305.0m)과 남서쪽의 해발 188.5m, 동쪽의 동암산(174.7m) 등의 높은 산지로 둘러 싸여 있는 분지형태이다. 남쪽으로는 저평한 경작지대로 이루어져 있다.

현재 정밀발굴지지역은 시굴당시 3지역에 해당되는 지역으로 충청남도 서산시 음암면 도당리 일원에 위치한다. 본지역은 음봉산(해발 250m)의 가지능선에 해당하는 나지막한 구릉의 말단부와 음봉산의 계곡부에서 기원한 소하천과 인접한 부분에 해당된다.

추가시굴조사지역은 시굴조사 당시 미보상된 부분으로 32번 국도와 탐곡리가 만나는 나지막한 구릉에 해당된다.





【도면 1】 조사지역 주변유적 분포도(1:25,000)



## 2. 考古歷史的 環境

서산지역에서의 고고·역사적 환경은 기존에 조사된 고고학적 자료와 문헌자료를 중심으로 최근까지의 내용을 정리하고자 한다.

먼저 구석기시대의 유적으로는 서산시 대로리유적, 서산시 석남동유적, 서산시 성연면 일남리유적, 서산시 음암면 도당리<sup>3)</sup>에서 보고되었다. 음암면 도당리 유적의 경우 해안에서 멀리 떨어진 내륙 깊숙한 곳에 위치하는데, 이곳에서도 구석기시대의 전통을 지닌 석기가 확인되고 있다는 사실은 서산지역 전역이 구석기인들의 활동무대가 되었을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신석기시대 유적으로는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유적<sup>4)</sup>, 서산시 해미면 휴암리유적<sup>5)</sup>, 서산시 대산읍 옹도리 유두목유적 등이 있다. 대죽리유적은 패총유적으로 화덕과 불탄흔적을 중심으로 형성된 20여 개의 생활면에서 각종 토기와 석기편이 확인되었다. 일반적으로 신석기시대의 경제는 수렵과 채집경제로 농경에 의한 인간의 정착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단계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내륙지역에서도 신석기시대 유적의 존재<sup>6)</sup>가 점차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신석기시대인들의 생활무대가 해안을 포함하여 내륙 깊숙한 곳까지 확대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청동기시대에 이르면 이전의 구석기·신석기시대와 비교하여 유적의 수가 증가한다. 대표적인 유적의 예로 휴암리유적<sup>7)</sup>과 대산 대로리유적<sup>8)</sup>, 갈산리유적<sup>9)</sup> 등이 있다. 휴암리유적은 원형과 방형수혈주거지와 함께 다량의 유물이 출토되어 남한 청동기시대 전기에서 중기로의 변화상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대로리유적과 갈산리유적은 단사선문 공열토기 등의 토기가 출토되는 장방형 수혈주거지가 확인된 청동기시대 전기의 유적으로 이 시기 서산지역의 문화상을 살펴보는 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이중 휴암리유적은 충북 청원 내수리와 부여 송국리 등 송국리형 주거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대로리유적은 출토된 단사선문 공열토기를 통해 한반도의 동북부→중부→동남부지역에서 출토되는 무문토기의 계통을 밝힐 수 있는 자료로 이해되고 있다. 그 밖에 인지면 둔당리, 남정리, 고북면 가구리, 장요리 등지에서 고인들이 지표조사를 통해 확인된 바 있으며, 기타 인지면 차리, 남정리, 고북면 신상리, 운산면 갈산리, 음암면 신장리, 부석면 강수리 등의 유물산포지가 알려져 있다.

원삼국시대 유적은 현재까지 발굴조사나 지표조사를 통해 확인된 예는 보고 되지 않았다. 그러나 서산지역에는 마한의 54국 중 하나인 致利鞠國이 자리하였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sup>10)</sup> 이와 관련된 유적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서산지역에서 역사시대의 유적은 1969년 대산읍 대로리 명지마을에서 백제시대 토광묘가 조사되

3) 山文化院, 1991, 『瑞山·泰安 文化遺蹟조사(上·下)』.

4) (財)忠淸文化財研究院 1997, 『瑞山 現代精油(株) 大山地方産業團地 造成敷地 文化遺蹟調査概略報告』.

5) 尹武炳 外, 1990, 『休岩里』, 國立中央博物館.

6) 대표적인 유적으로는 공주 장원리유적, 청양 학암리유적이 있다.

7) 尹武炳 外, 1990, 註 4)의 보고서.

8) 韓永熙, 1984, 「대로리 움집터 유적」, 『中島進展報告(V)』, 國立博物館 古蹟調査報告 第16冊, 國立中央博物館.

9) (財)忠淸文化財研究院, 2002, 『國道 32弧線 瑞山-唐津間 道路 擴張 및 包藏工事 區間內 文化遺蹟 試·發掘調査 略報告書』.

10) 崔觀宇, 1977, 「마한제국의 위치비정」, 『동양학』 9.

면서 알려지기 시작했다. 이 시기에 해당하는 유적은 분묘와 관방유적 그리고 불교유적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분묘유적은 서산 대산면 명지리 고분군<sup>11)</sup>, 기은리 고분군, 젓다리 고분군, 산수리 고분군, 금학리 고분군, 여미리유적<sup>12)</sup> 등이 있다. 산성유적으로 부성산성, 북주산성, 신송리산성이 확인되었으며, 불교유적으로는 서산마애삼존불과 통일신라이후의 불교유적이 확인되었다.

우선, 분묘유적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명지리 토광묘는 모두 3기가 조사되었는데, 조사결과 장축방향이 등고선과 평행하게 조영되었으며, 매장방식은 토광에 목관이나 목곽없이 직접 시신을 안치한 것으로 보이며, 철기와 토기가 부장되었다. 이중 1호분과 2호분에서는 환두대도가 확인되어 토광묘의 피장자가 당시 일정한 세력과 신분을 가진 사람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리고 지표조사를 통하여 명지리 토광묘의 근접지역인 기은리에서 다수의 토광묘가 자리하고 있으며, 팔봉면 금학리, 해미면 산수리, 지곡면 산성리 2구 등에서 백제시대의 석실분이 확인되었다. 이 중 금학리 고분군은 중앙묘제인 횡혈식 석실분 계통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서산지역에는 시대미상의 고분군이 자리하고 있는데, 이들 고분 중에는 백제 고분이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여미리 유적의 경우 토광묘 8기, 석곽묘 20기, 옹관묘 4기, 와관묘 5기, 백제시대 건물지 2동, 수혈유구 2기, 요지 및 요 관련시설 각 1기가 조사되었는데, 와관묘의 경우 이 유적에서 처음으로 밝혀진 백제시대 묘제이다.<sup>13)</sup> 여미리 유적은 또한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여미리 지역과 관련된 다음의 문헌기록에서도 그러한 사실을 알 수 있다. 『新興東國輿地勝覽』 〈海美縣〉 建置沿革條에 “餘美縣은 본래 百濟의 餘村縣으로, 新羅에서 餘邑으로 고쳐 樞成郡의 屬縣으로 하였고, 高麗 初期에 다시 餘美라 고쳤으며 顯宗 9년에 運州에 속하였고...”<sup>14)</sup>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古蹟)條에 “고여미현 : 현 관아의 북쪽 30리 지점에 석축으로 된 성이 있는데 둘레가 881척이나 지금은 폐하였다.”<sup>15)</sup>라는 기록이 보이는 것으로 보아 삼국시대부터 이 지역이 지방의 거점지역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서산지역은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고 행정구역을 9주 5소경제로 재편한 이후에도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하게 된다.

고려시대의 서산지역은 『高麗史』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인종 23년 부성현령을 두었다가 명종 12년 반란으로 인해 관호를 삭제당한다. 그 후 충렬왕 10년 知瑞山郡事로 승격되었다가 34년 西州牧으로 되었다. 충선왕 2년 淸州府로 되었다가 뒤에 知瑞州史로 되었다. 고려시대에도 통일신라시대

11) 金永培·韓炳三, 1969, 「瑞山 大山面 百濟土壙墓發掘報告」, 『考古學』 2.

12) 李尙燁, 2001, 『瑞山 餘美里遺蹟』, (財)忠淸文化財研究院 文化遺蹟 發掘調査 21輯, (財)忠淸文化財研究院·韓國道路工事.

13) 李浩炯, 1999, 「瑞山 餘美里遺蹟 發掘調査 概要」, 『湖西地方의 先史文化』, 第1會 湖西考古學會 學術大會 發表要旨, 湖西考古學會.

14) 『新興東國輿地勝覽』 「海美縣」, (建置沿革)條.

“餘美縣本百濟餘村縣 新羅改餘邑爲樞成郡領縣 高麗初改餘美 顯宗九年屬運州...”

15) 『新興東國輿地勝覽』 「海美縣」, (古蹟)條.

“古餘美縣 在今置北三十里 遺石城 周八百八十一尺 今廢”

와 같이 富城縣 아래에 屬縣인 知六縣이 명칭상으로 변화된 知谷縣과 蘇泰縣이 자리하고 있었으며, 부성현은 양광도에서 강화현·기림현과 같이 縣이면서 독립된 군현에 속하는 3개의 현 중 하나였다. 고려말에 이르러 왜침에 의한 전란 등으로 인해 다시금 역사적인 큰 상황이 나타나게 된다. 고려말 몽고군과 倭寇의 침입은 서산지역을 혼란스럽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고종 32년에 몽고의 3차 침입과 왜구의 충청도 일부 지역 등이 그들에 의해 점령되는 결과를 낳았는데 서산지역은 이들 점령지의 주요 지역이 되었다.

조선시대 집권자들에 의해 지방의 통제력 강화를 목적으로 정력적인 지방편제를 행하게 되면서 서산지역은 이러한 영향하에 놓이게 된다. 전국을 8도로 구분하고 府·牧·大都護府·都護府·郡·縣 등으로 행정구역을 개편하면서 오늘날까지 이르고 있다. 당시 서산지역에는 서산군과 해미현이 자리하고 있었으며, 이후 해미현의 경우 정해현과 여미현을 합치면서 해미현이 되었다. 서산지역이 역사적으로 다시 부상하게 되는 계기는 동학농민운동시 동학농민군들에 의해 서산지역이 점령되면서부터 다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동학농민운동실패 후 이 두 지역은 역사의 전면에서 사라지게 된다. 이후 일제시대에 대대적인 행정개혁시 오늘날의 명칭과 같은 면으로 조직 개편되었다.

### Ⅲ. 조사내용

#### 1. 시굴조사 (4구간)

시굴조사는 토지 미보상으로 인해 진행되지 않았던 4구간 (면적: 8667㎡)에 대한 조사이다. 금번 조사에서도 사업이 보류되어 보상되지 않은 지역(면적: 1,815㎡)이 있어 보상된 지역에 한하여 조사를 진행하여 마무리하였다.

조사는 트렌치를 설치하여, 유구 및 유물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려고 하였다. 트렌치의 방향은 등고선에 직교하도록 하여, 간격은 약 8~10m정도로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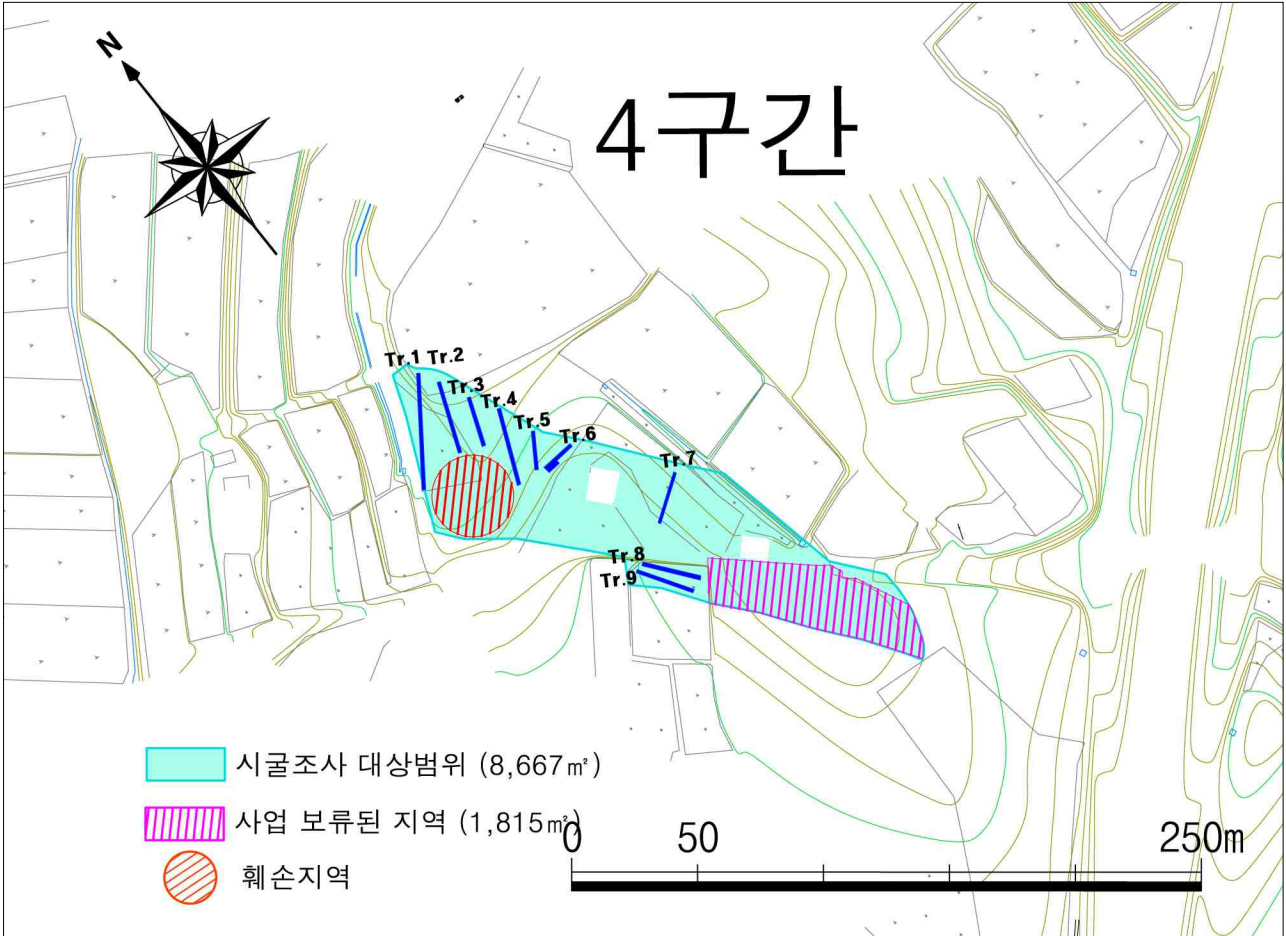
조사결과, 총 9개의 트렌치에서 유구 및 유물은 확인되지 않았다. 각 트렌치의 양상은 다음과 같다.

##### 1) 트렌치 1

상단(북동쪽) 부분은 암갈색사질토가 비교적 두껍게 퇴적되었으나, 하단부분은 갈색사질토가 얇게 퇴적되었다. 유구 및 유물은 확인되지 않았다. 상단부분은 근대에 들어 경작지 조성으로 인하여 복토된 것으로 판단되며, 하단부는 어느 정도 기반토를 굴삭하여 경작지를 조성한 것으로 보인다.

##### 2) 트렌치 2

전체적으로 갈색사질토가 퇴적되었다. 유구 및 유물은 확인되지 않았다. 기반토가 단을 이루며 형성된 것으로 보아 경작지 조성을 위하여 기반토를 굴삭한 것으로 판단된다.



【도면 2】 4구간 트렌치 배치도 (S=1/3,000)

### 3) 트렌치 3

트렌치2와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갈색사질토가 퇴적되었다. 유구 및 유물은 확인되지 않았다. 기반토가 단을 이루며 형성된 것으로 보아 경작지 조성을 위하여 기반토를 굴삭한 것으로 판단된다.

### 4) 트렌치 4

트렌치2와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갈색사질토가 퇴적되었다. 유구 및 유물은 확인되지 않았다. 기반토가 단을 이루며 형성된 것으로 보아 경작지 조성을 위하여 기반토를 굴삭한 것으로 판단된다.

### 5) 트렌치 5

전체적으로 갈색사질토가 퇴적되었다. 유구 및 유물은 확인되지 않았다. 트렌치 중앙부에는 수혈형태의 굴삭갱이 있으나 근대에 들어 조성된 것이다.

### 6) 트렌치 6



전제적으로 갈색사질토가 퇴적되었다. 유구 및 유물은 확인되지 않았다. 트렌치 중앙부에는 수혈형태의 굴삭갱이 있으나 근대에 들어 조성된 것이다.

7) 트렌치 7

전제적으로 갈색사질토가 퇴적되었다. 유구 및 유물은 확인되지 않았다.

8) 트렌치 8

전제적으로 암갈색사질토가 퇴적되었다. 유구 및 유물은 확인되지 않았다. 기반토를 삭평하여 경작지를 조성한 것으로 보인다.

트렌치번호	깊이 (cm)	유구		비고
		시대	성격	
1	30~160	.	.	4구간
2	30~140	.	.	4구간
3	30~70	.	.	4구간
4	30~75	.	.	4구간
5	30~80	.	.	4구간
6	40~99	.	.	4구간
7	20~30	.	.	4구간
8	30~50	.	.	4구간
9	30~50	.	.	4구간

【표 1】 성연~운산간 지방도 확포장공사 구간내 4구간 문화유적 시굴조사 트렌치 조사현황



【사진 1】 Tr.1 (남서에서)



【사진 2】 Tr.2 (남서에서)



【사진 3】 Tr.3 (남서에서)



【사진 4】 Tr.4 (남서에서)



【사진 5】 Tr.5 (남서에서)



【사진 6】 Tr.6 (서에서)



【사진 7】 Tr.7 (남서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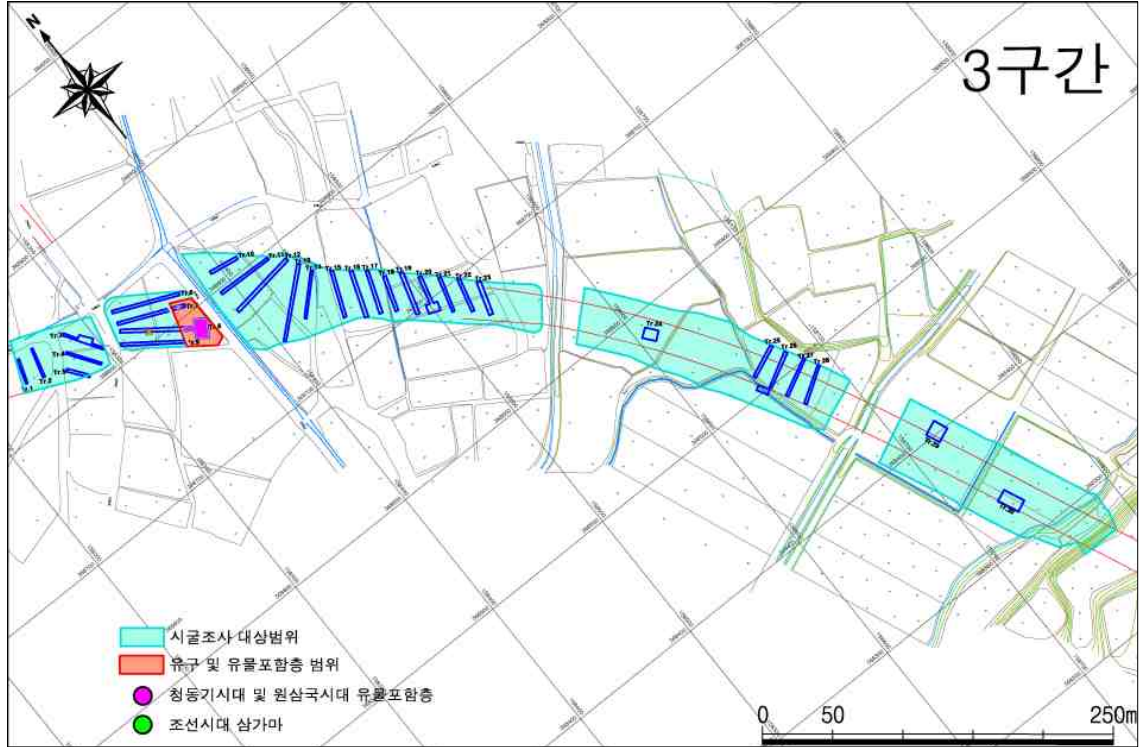
【사진 8】 Tr.8 (북서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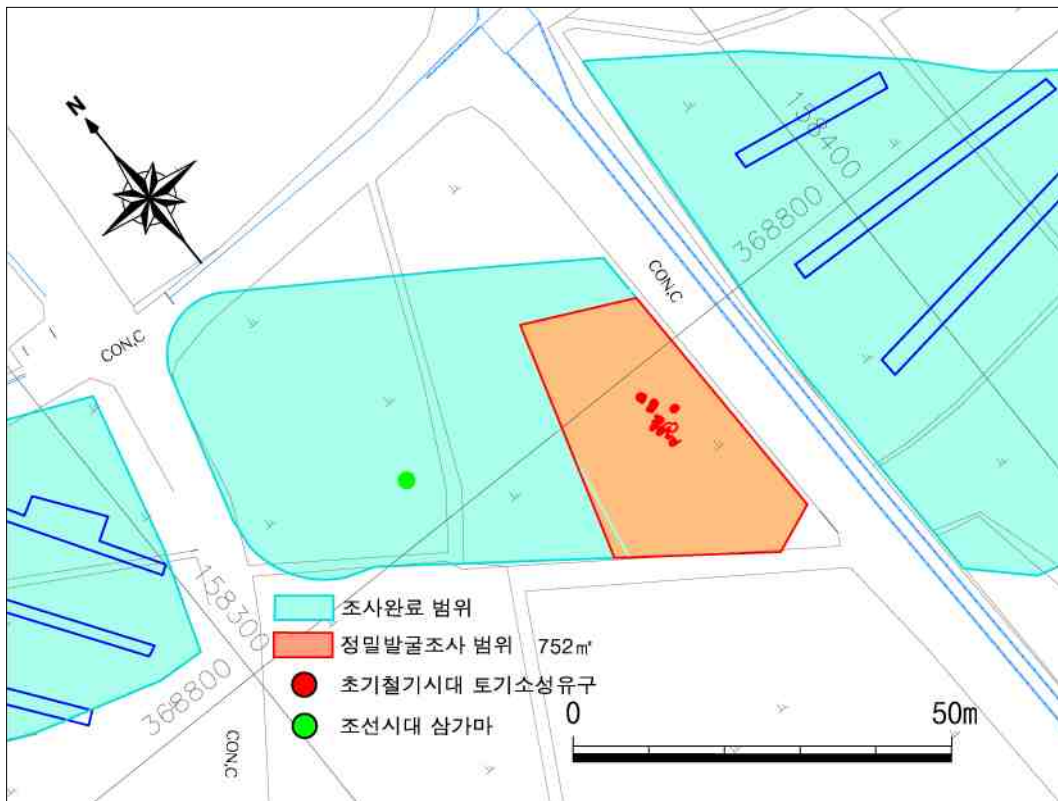
【사진 9】 Tr.9 (북서에서)



## 2. 정밀발굴조사(3구간)



【도면 3】 3구간 시굴조사 트렌치배치도 및 유구분포도 (S=1/5,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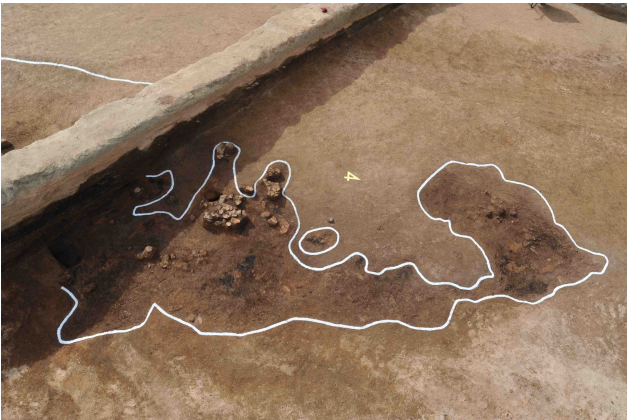


【도면 4】 3구간 정밀발굴조사 유구 배치도 (S=1/1,000)

금번 정밀발굴조사는 시굴조사 당시 청동기시대~원삼국시대 유물포함층으로 보고된 지역 (면적 752㎡)과 조선시대 삼가마에 대하여 진행되었다. 조사는 시굴조사시 층위에 따라 층위의 상면까지 평면제토작업을 실시하였다. 제토과정에서 역시 조사지역 전체에 점토대토기를 중심으로 하는 초기 철기시대 유물들이 다수 확인되어, 유물의 출토위치 및 출토상황을 기록하며 수습한 뒤, 또 하강하는 작업을 반복하였다. 조사지역 동쪽, 해발고도 약 48m지점에서 제토를 실시하는 중 기반토의 피열화가 확실히 확인되었고, 토기소성유구의 존재가 드러났다.

### 1) 초기철기시대 토기소성유구

토기소성유구는 총 21기가 확인되었는데, 대부분 중복조성되었다. 평면형태는 원형 내지 타원형으로 규모는 약 50~80cm 정도이다. 기반토의 회색사질토를 단면 반월형으로 깊이 약 20cm 정도 굴광하였다. 바닥 중앙부에 1개 내지 2개의 받침대로 추정되는 시설이 있는데, 직경 약 10cm의 원형 수혈을 굴광하고 거기에 토기 저부를 거꾸로 뒤집어 놓았다. 받침대 주변의 바닥면에는 목탄이 분포하는 반면, 저부 접지면에는 연료의 목탄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소성유구 시설로 판단된다.



【사진 10】 소성유구 상부 유물출토 상황 (동에서)



【사진 11】 소성유구 조사 전 모습 (동에서)



【사진 12】 조사지역 퇴적양상 (남서에서)



【사진 13】 소성유구 조사 중 모습 (동에서)





【사진 14】 소성유구 토층 단면 (동에서)



【사진 15】 소성유구 내부시설 (동에서)

상부구조는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 많다. 먼저 일본에서 조사된 예와 비교해보면, 야요이시대 소성 유구에서 흔히 확인된 초본 흔적이 남아 있는 소토 덩어리가 조사지역의 소성유구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토기소성유구에서 흔히 출토되는 소성실패품으로 판단되는 파편들이 많이 출토되지 않았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당시의 토기소성은 현재 청동기시대 토기 소성실험에서 시행되는 덮개형 및 개방형의 소성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소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소성유구 내부 퇴적양상은 공통적으로 아래부터 바닥면→목탄→소토의 순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러한 정황은 연료를 바닥에 놓고 그 위에 토기를 얹어 소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유물은 단면 원형 및 삼각형 점토대토기 등이 출토되었다.

## 2) 조선시대 삼가마

삼가마는 갈색사질토를 기반으로 조성되었다. 평면형태는 타원형이며, 규모는 직경 188cm 깊이가 48cm이다. 내부에는 목탄과 피열된 석재가 퇴적되었다. 바닥면에는 직경 약 5cm 정도의 주공 5개가 확인되었다. 유물은 출토되지 않았다.



【사진 16】 삼가마 조사 중 모습



【사진17】 삼가마 조사완료

## IV. 조사결과

금번 조사는 성연-운산간 국지도 확포장 공사 문화재 발굴(시굴)조사이며, 3구간의 정밀발굴조사와 4구간의 시굴조사를 진행하였다.

**4구간 시굴조사**에서는 사업이 보류되고 보상되지 않은 지역을 제외하여, 보상 및 토지사용 승낙을 받은 지역 6,852㎡에 한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결과 유구 및 유물은 확인되지 않았다. 조사지역은 현대에 들어 경작지 및 이식으로 인해 어느 정도 형질변경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판단된다.

**3구간 정밀발굴조사**에서는 초기철기시대 토기소성유구 21기가 조사되었다. 이 시기(단면 삼각형 점토대토기 단계)에 해당하는 토기소성유구는 금번 조사에서 처음으로 발견되어, 토기생산지가 조사된 유적으로서 학술가치가 매우 크다고 판단된다. 조사성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토기생산과정의 일부를 알 수가 있었다. 소성유구는 총 21기가 중복 확인되었는데, 이것은 소성유구의 사용이 완료되면 또 다시 같은 자리에서 소성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층위별로 수습된 유물은 점토대토기 편년안의 층위학적 검토를 가능하게 한 자료로서 중요하다. 또한 주변에서 초기철기시대의 주거지 조사가 증가하고 있어, 생산과 소비에 따른 유통 및 인간 활동범위 등을 검토하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된 것으로 기대한다.

**【표 2】** 발굴(시굴)조사 확인유구 현황

조사구간	기 점	유 구 내 용	면 적	향후처리
1구간	STA0+100~0+900	확인된 유구 및 유물 없음	16,588㎡	조사완료
3구간	STA1+900~2+800	초기철기시대 토기소성유구 21기	29,139㎡	조사완료
4구간	STA3+900~4+200	확인된 유구 및 유물 없음	8,667㎡	조사완료된 6,852㎡에 대하여 공사진행 가능. <u>사업이 보류된 지역1,815㎡에 대해서는 사업이 확정시 별도 발굴허가신청 후 시굴조사 필요</u>
발굴(시굴)조사 대상 총면적			54,394㎡	